지식재산처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11.9.(월) 09:00 배포 2026.11.9.(월) 08:30

지식재산처, 한·중·일 협력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 인재 양성 모색

- 제17차 한·중·일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 참석 -

- 3국 공동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미래 지식재산(IP) 인재 양성 협력 모색-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1. 10.(화) 10시 텐진 비즈니스 센터 II(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제17차 한·중·일 지식재산(IP) 연수기관장 회담*」에 참석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및 3국 간 교육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한국 국제지식재산연수원(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Institute, IIPTI),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 INPIT), 중국 지식재산배훈중심(China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Center, CIPTC) 기관장 및 실무진 참석

한·중·일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은 2010년부터 3국이 순차적으로 개최해 온 협력 회의로, 각국의 지식재산 교육정책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회담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교육의 환경 변화와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육성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국의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사례와 교육 운영 시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요구되는 지식재산 인재의 역량과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회담에서 제안된 한·중·일 공동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송성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일 3국의 교육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교육과	책임자	과 장	김동국 (042-601-4350)
		담당자	사무관	문경록 (042-601-43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